

洪錫律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자유시 참변 서술 연구

2007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趙 한 나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자유시 참변 서술 연구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년 7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趙 한 나

認 准 書

趙한나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논문개요

1920년~1921년 여러 갈래의 한인 무장세력들은 무장부대들의 통합을 위해 자유시로 집결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 28일 일어난 자유시 참변으로 수많은 탈영자 및 희생자가 발생하여 한인 무장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후 통합된 군대가 사실상 항일운동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자유시 참변은 군대 통합을 둘러싸고 상해파의 사할린의용대와 갈등하던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정의회가 러시아 적군과 함께 사할린의용대를 무장해제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원인이며, 사건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극동지역의 내전 상황과 이에 따른 러시아 한인 정책의 변화, 러시아령의 한인 항일세력의 갈등 및 한인 무장부대활동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자인 김준엽·김창숙, 서대숙, 신재홍 등의 연구성과는 선구자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반공주의적 관점으로, 독립운동 범주 안에서 사회주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녔다. 1980년대 말 등장한 소장연구자들은 사회주의를 항일 민족운동의 범주속에서 파악하고자 했으며, 소련 붕괴 이후 소련 공산당 및 코민테른의 문서 공개는 이들의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최근에는 자유시 참변을 러시아의 한인정책 변화, 한인 무장통합운동, 러시아 한인 항일운동세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성과들이 나왔다.

1978년 개정된 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에 처음으로 자유시 참변이 등장할 때부터 6차 국사 교과서까지의 교과서 서술은 반공주의적 입장인 초기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사건을 단순히 적군에 의한 배신행위로 규정하였다. 현재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는 학계의 많은 연구성과

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 선정 및 서술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요 해외 독립운동 지역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서술하지 않았다. 둘째, 러시아령의 항일운동세력(대한국민의회, 한인사회당, 한인 공산당세력, 한인 무장부대세력)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거나 왜곡된 서술을 하고 있다. 셋째, 만주 독립군 위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사와 상호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의 6개 목표 중 2개는 세계사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바라 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 극동지역 가운데 하나인 자유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당시 러시아 내전의 흐름에 따른 볼셰비키 세력의 한인 정책과 볼셰비키 정부와 일본 간섭군의 관계 및 한인 항일세력과 일본과의 관계가 사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과 상호 연관된 국제 상황을 충분히 서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대단원 도입부(세계사), 본문(한국사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시각과 피상적인 세계사 서술로 자유시 참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자유시 참변 관련 서술내용 비교	5
1. 만주 독립군의 이동 경위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	6
2. 자유시 참변의 발생 경위와 성격	10
III. 자유시 참변 관련 서술의 쟁점과 문제점	15
1. 러시아 극동지역 내전 상황과 한인 항일운동	15
2.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성장과 내부갈등	19
3. 무장부대의 자유시 집결과 군대 통합 문제	29
IV. 결 론	34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自由市 慘變¹⁾’은 만주 독립군을 포함하여 여러 갈래의 ‘한인 무장부대²⁾’가 러시아 자유시에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1921년 6월 28일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정의회 군대가 러시아 적군과 함께 상해파의 사할린의 용대를 강제 무장 해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인 무장부대원들을 살상한

- 1) ‘自由市 事變’, ‘黑河事變’, ‘黑河事件’, ‘黑河慘變’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유시는 러시아 혁명 이전 알렉세예프스크로 불리다가 혁명 이후 ‘자유’라는 뜻을 지닌 스보보드니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들은 그 도시를 자유시라고 불렀다. 자유시 부근에는 아무르강(흑룡강)의 지류인 제야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흑하사변’이라는 용어가 나온 듯 하다(金璟載 「黑河事變의 真相(1-3)」, 『독립신문』, 1922년 5월 6일 - 6월 3일; 윤상원, 『自由市 慘變 前後 朝鮮人 武裝部隊 統合運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쪽, 재인용) 그러나 자유시에 약간 떨어진 블라고베센스크시가 당시 조선인들에게 黑河시로 불리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흑하사변’이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참변’이라는 용어는 자유시 부근의 수라세프카에서 일어난 무장충돌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붙여진 용어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장충돌만이 아닌 사변을 전후하여 전개된 조선인 무장부대의 동향 전체를 서술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대체로 자유시 사변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윤상원, 위의 논문, 1쪽). 그런데 현재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모두 ‘자유시 참변’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고에서도 ‘자유시 참변’이라 지칭하겠다.
- 2) 극동지역에 존재했던 한인 무장세력은 만주 독립군 부대와 러시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한인 파르티잔 및 항일 의병세력들로 나눌 수 있다. 만주 독립군은 간도 일대에서 조직되어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경신토벌’을 피해 옮겨온 세력들을 지칭한다. 파르티잔(정치적 목적으로 결집된 무장부대)의 경우 빨치산이라고도 한다. 한인 빨치산 부대들은 러시아 혁명 이후 시베리아 내전 시기에 조직되어 적군 빨치산들과 함께 활동하던 세력을 말하며 주된 적은 일본군이었다. 한편 한인 가운데는 적군부대에 직접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윤상원, 『무장부대 통합운동과 대한독립군단: 1920년대 초 만주와 연해주 무장부대들의 동향』, 『역사문화연구』24, 2006, 122~123쪽; 엔.아. 부찌닌, 알탄백 쿠르만 바예프 역·윤상원 감수, 『러시아 내전에서의 한인들의 참전』, 『역사문화연구』24, 2006, 96쪽). 한인 빨치산 부대원 가운데는 항일 의병세력 출신도 있었으며, 항일 의병세력 중 많은 이들이 러시아 혁명 이후 좌파로 경도되었다. 그러나 일부 의병세력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본고는 자유시 참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만주 독립군과 한인 파르티잔으로 범위를 한정하겠다. 단 한인 파르티잔의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파르티잔이란 용어 대신 한인 무장부대라고 지칭하며, 만주 독립군과 구별하고자 한다.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대단히 복잡하며, 어느 한 요인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초기 한인 공산당 내부의 갈등, 여러 계통의 한인 무장 세력 내의 갈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과 볼셰비키의 한인정책 등 제반 변수가 이 사건에 중첩적으로 개입되었다.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인의 주요 해외 독립운동 기지이자, 러시아 혁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군 등이 들어와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수많은 한인무장부대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무장 해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자 많은 사할린의용대의 한인들이 탈영하였으며,³⁾ 참변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도망자 및 행방불명자들이 생겨나 무장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한인 독립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분야의 선구적 연구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는 김준엽·김창숙, 서대숙, 스칼라피노·이정식, 신재홍의 저서들이 대표적이다.⁴⁾ 이들 연구성과의 일차적인 연구 목적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세력을 항일 민족운동세력의 한 부분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로서 파악하는 한편, 코민테른이나 러시아 공산당에 종속된 세력으로 파악하였다.⁵⁾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주의 운동도 항일 민족운동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지닌 소장 연구자들이 등장하여, 독립운동의 범주 안에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을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의 연구는 소련정부의

3) 권희영, 「자유시사변 연구」, 『한인 사회주의 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9, 204쪽

4) 김준엽·김창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1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러버트 A.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1권, 한홍구 옮김, 돌베개, 1986;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 현대사연구회 옮김, 화다, 1985; 신재홍, 「자유시 참변에 대하여」, 『백산학보』14, 1973

5) 반병률, 「한국 사회주의운동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세대의 학문적 결산」, 『역사와 현실』통권 52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333~334쪽

붕괴 후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른 문헌이 공개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⁶⁾

최근 자유시 참변에 관한 연구들은 소비에트를 보호하기 위한 볼셰비키 정권의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⁷⁾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혁명론을 비롯한 정치사상의 차이에 비중을 두는 것,⁸⁾ 무장부대의 통합운동 전개과정에서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것,⁹⁾ 러시아의 한인 민족운동에 비중을 두고 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에 초점을 둔 것¹⁰⁾ 등 다양한 시각의 성과들이 나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자유시 참변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정확성 여부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시 참변은 3차 교육과정 중 1978년 개정된 교과서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3차~6차 교과서 모두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단순히 소련 적군에 의한 배신행위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약소민족을 후원한다는 적색군에게 배신당하여 무장 해제까지 당하는 자유시 사변”이라고 서술하였으며,¹¹⁾ 4차에는 교과 내용에

6) 반병률, 위의 논문, 333~334쪽

7) 권희영,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 국학자료원, 1999; 『한인 사회주의 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9

8)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임경석의 연구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형성과 발전, 혁명이론, 그리고 정책을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음으로써 이들의 갈등이 단순한 파쟁이 아니라 정세인식의 차이와 정치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9) 윤상원, 『自由市 慘變 前後 朝鮮人 武裝部隊 統合運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무장부대 통합운동과 대한독립군단: 1920년대 초 만주와 연해주 무장부대들의 동향』, 『역사문화연구』제 24집, 2006

10)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대한민국의회의 민족운동과 안창호』, 『도산사상사연구』5, 도산사상연구회, 1998; 『3.1운동과 만주·노령지역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3집,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11)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국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1, 277쪽

선택되지 않았다.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약소 민족을 지원한다고 하는 적색군에게 이용당하고, 끝내는 무장해제까지 당하는 자유시 참변을 겪었다”라고 서술했으며,¹²⁾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적색군의 감언이설에 속아 자유시로 이동하였고, 적색군을 도와 내전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적색군은 내전에 승리한 후 독립군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군을 공격함으로써 무수한 사상자를 낸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야기하였다(1921)”¹³⁾라고 서술했다.

본고에서는 최근 연구들을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6종 교과서의 자유시 참변 서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자유시 참변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 및 그 지역 한인 무장독립운동의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교과서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국사』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0, 147쪽

13)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국사』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157쪽

II. 자유시 참변 관련 서술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는 자유시 참변을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 부분의 “독립군 시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술하고 있다.¹⁴⁾ 현재 한국근·현대사 검정 교과서는 모두 6종이며, 그 출판사와 집필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출판사 명칭으로 각 교과서를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검정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번호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약칭
①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진오 외 4인	2006	중앙교육
②	천재교육	김홍수 외 5인	2006	천재교육
③	두산	김광남 외 4인	2006	두산
④	금성출판사	김한종 외 5인	2006	금성
⑤	대한교과서	한철호 외 5인	2006	대한교과서
⑥	법문사	김종수 외 3인	2006	법문사

자유시 참변에 관한 한국근·현대사 6종 교과서의 전체적인 서술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구체적 사실과 서술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자유시 참변 관련 서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만주 독립군의 자유시로의 이동 경위와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이며, 두 번째는 자유시 이동 후 사건의 전개 과

14) 대단원 III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중단원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소단원 3 “192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에 자유시 참변 서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몇 개의 교과서의 경우 소단원 내에 내용 별로 몇 개의 소제목을 두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자유시 참변의 경우 6종 교과서중 3종 교과서에서 “독립군 시련”이란 제목 아래 서술되어 있다. 그 외 3종의 경우 소제목이 따로 제시되지 않거나 다른 제목 아래 자유시 참변이 서술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독립군의 시련이라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다.

정과 자유시 참변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1. 만주 독립군의 이동 경위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자유시 참변은 만주 독립군의 자유시 이동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고 있다. 만주 독립군의 이동 경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간도참변’이며, 두 번째는 밀산에서의 대한독립군단 조직과 자유시(러시아 극동지역)로의 이동이다.

간도참변은 6종 교과서 모두가 언급하는 만주 독립군 이동의 직접적 원인으로 중앙교육, 천재교육, 대한교과서는 본문에서 간도참변을 서술했으며,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자유시 참변 내용 앞에 이를 소개하고 있었다.¹⁵⁾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하게 된 배경을 인과관계를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도참변과 일본군의 끊임없는 공세로 인해 독립군의 만주에서 활동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독립군은 무장역량을 보존하고, 장기전을 위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이 필요하였다. 1차적으로 만주 독립군은 밀산에서 회합을 가지고 자유시로의 이동을 결정한 뒤,¹⁶⁾ 대한총군부를 조직하

15) 금성, 법문사 교과서는 자유시 참변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제목 독립군의 시련 앞부분에 소제목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두고 이 부분에서 간도참변을 서술하고 있으며 두산 교과서는 청산리 전투와 별개로 간도참변이란 소제목을 독립군 시련 앞부분에 두고 서술하고 있었다.

16) 임경석과 윤상원은 독립군이 밀산에 모여 이후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임경석은 “대규모 회합은 국경지대 밀산에서 이루어 졌다. (중략) 이 회의의 중요 의안은 (중략) 러시아 영내로 이동하는 문제, 러시아 공산당과의 제휴문제 등이 논의 되었다”라고 서술했으며(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322쪽), 윤상원은 “홍범도는 안정근, 왕삼덕을 통하여 노령의 中露聯合宣傳部와 연락하여 밀산에 모

였다.¹⁷⁾ 그리고 2차적으로 러시아의 이만에 집결하여 보다 많은 부대들을 망라한 뒤, 대한총군부를 대한독립군단으로 확대 개편¹⁸⁾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만주 독립군의 이동과정에 대해 반영하고 있다. 중앙교육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자유시로 이동 전 독립군이 사전에 재정비를 통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3종의 교과서(법문사, 금성, 대한교과서)는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되었다고 서술했으며,¹⁹⁾ 천재교육 교과서는 1920년 말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었다는 것만 서술할 뿐 그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 단 두산 교과서만 이만을 거쳐 자유시로 이동했음을 서술했으나 대한독립군단은 이미 밀산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서술했다.

만주에서 자유시로 이동에 모든 독립군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 극동 공화국이 독립군 이동시 무장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독립군은 되돌아갔다. 당시 극동 공화국은 일본군과의 마찰을 꺼려했으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²⁰⁾만이 위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독립군의 자유시 이동 후, 사건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기에 앞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자유시가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여 이후 진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서술했다[姜德相, 『現代史資料』27권, 315쪽 (윤상원, 앞의 논문, 2006, 120쪽 재인용)].

17) 임경석, 앞의 책, 322쪽

18) 윤상원, 앞의 논문, 2006, 130쪽

19)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6, 184쪽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6, 194쪽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6, 182쪽

20)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로군정서를 비롯한 일부 독립군 부대는 러시아가 독립 운동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북만주에서 다시 돌아왔지만”이라고 서술했다(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 2006, 208쪽).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시 참변을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즉 독립군이 자유시로 이동하게 된 배경을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과 러시아와 한인독립군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 상황과 러시아와 한인 독립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러시아의 두 차례의 혁명, 혁명정부와 코민테른의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약속이며, 둘째는 러시아 내전과 일본군의 참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한인 독립운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對日韓露攻守同盟’이다.

1917년 10월 혁명 후, 러시아는 볼셰비키세력(적군)과 이를 반대하는 백군의 내전에 휩싸였다. 한편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제국주의 열강들은 1918년 6월 발생한 체코인의 봉기를 빌미로 간섭군을 파견하여 백군을 지원하였다. 이때 일본은 간섭군 중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극동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즉 적군과 한인 독립군은 일본군을 공동의 적으로 두고 함께 싸웠던 것이다.

볼셰비키 세력은 코민테른을 통해 세계 공산화를 꿈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럽에서 공산화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다음으로 눈을 돌릴 곳은 식민지 민족들이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이들의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이었다.²¹⁾

볼셰비키가 일본을 적으로 두며, 약소민족해방을 약속한 것은 독립군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볼셰비키 세력은 내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독립군이 필요했을 것이다. 1920년 8월, 임시정부 대표 한형권과 볼셰비키 정부 사이에 맺어진 ‘對日韓露攻守同盟’은 이러한 모습을

21) 1920년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공산주의 지도부는 “과연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와 같은 발판 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까지인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권희영, 앞의 책, 336쪽).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규모 한인 부대 편성계획의 토대가 되었다.²²⁾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對日韓露攻守同盟’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관해서만 서술해 놓았다.²³⁾

자유시 참변을 서술하면서 중앙교육, 법문사 교과서는 러시아 내전 상황을 언급했다. 중앙교육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가장 자세하게 러시아 극동지역 내전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당시 시베리아 지방에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외국 군대까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세한 상태였다. 이 때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소련이 도와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²⁴⁾

또한 중앙교육 교과서는 내전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독립군으로 하여금 불세비키 정부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법문사 교과서는 독립군이 단순히 적군을 도와 내전에 참전한 사실만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혹은 러시아에 대한 독립군의 기대 부분은 금성 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 모두가 본문에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금성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 앞부분에서 소련의 약소민족 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선언과 약소 민족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22) 임경석, 앞의 책, 313쪽

23)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교과서 본문이 아닌 해당 단원의 앞부분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어 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참고로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그 흐름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단원의 앞부분에 해당 시기 세계사의 간단한 흐름을 다루는 소단원을 설정하고 있었다(방지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세계사 내용 강화방안』, 김한중 외, 앞의 책, 2005, 337쪽).

24)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6, 207쪽

한국근·현대사 6종 교과서는 모두 코민테른, 내전, 약소민족 해방에 대해 저마다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교과서는 위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포함하고 있어도 대단원 앞부분이든, 본문이든 하나의 단원에서 러시아 혁명, 코민테른, 내전, 약소민족해방 모두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다. 다만 금성 교과서는 대단원 도입부에서 코민테른과 약소민족 해방운동 지원 약속을 직접 언급하고 내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²⁵⁾ 코민테른의 경우 4종의 교과서(법문사, 금성, 천재교육, 대한교과서)²⁶⁾에서 대단원 앞부분인 소단원에서만 직접 언급했으며 이중 코민테른과 약소민족을 함께 언급한 교과서는 2종(금성, 대한교과서)²⁷⁾에 불과했다. 한편 내전과 약소민족해방을 같은 단원에서 서술한 교과서는 두산, 법문사, 대한교과서, 중앙교육 교과서가 있다.²⁸⁾ 두산과 법문사 교과서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중앙교육과 대한교과서는 대단원 도입부에서 서술하고 있다.

2. 자유시 참변의 발생 경위와 성격

25) 금성 교과서는 대단원 도입부에서 “소련은 (중략) 제정 러시아 출신의 반혁명군의 저항과 혁명이 확대되는 것을 꺼려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간섭을 막아내면서 정권의 안정을 이루어 갔다”라고 내전에 대해 간접 언급하였다(김한중 외, 앞의 책, 2006, 144쪽).

26) 김종수 외, 앞의 책, 141쪽
 김한중 외, 앞의 책, 2006, 144쪽
 김홍수 외, 앞의 책, 157쪽
 한철호 외, 앞의 책, 133쪽

27) 김한중 외, 앞의 책, 2006, 144쪽
 한철호 외, 앞의 책, 133쪽

28) 중앙교육 교과서는 대단원 도입부에서 “제국주의 열강은 소련이 안정되기 전에 무너뜨리려 하였고, 이에 맞서는 소련은 제국주의 국가와 갈등하고 있는 식민지의 민족해방 운동과 연대하고자 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내전과 약소민족해방 지지를 모두 서술한다고 볼 수 있다(주진오 외, 앞의 책, 153쪽).

한국군·현대사 교과서에는 자유시 참변의 전개를 군 통수권과 이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하고 있다. 대한교과서, 범문사 교과서를 제외한 4종에서 적군에 의한 무장해제 전에 이러한 내용을 넣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유시 참변이 단순히 적군에 의한 무장 해제가 아니라 군대 통합과 통수권을 둘러싼 갈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종 교과서 중 중앙교육, 금성 교과서는 군대 통합과 통수권 문제를 당시 자유시에 있던 상해파,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반목과 함께 연결하여 내용에 질적 풍부함을 부여했다.

4종의 교과서(중앙교육, 천재교육, 두산, 금성)가 공통적으로 군대 통수권을 둘러싼 갈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제각기 달랐다. 중앙교육의 경우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은 내부의 지휘체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²⁹⁾고 하여 군대 통수권 문제가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에 의해 주도권 다툼이 발생되었다는 의미로 서술되었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당시 자유시에 있던 한인 무장부대를 따로 언급하고, 이들 군대의 싸움에 자유시로부터 이동해 온 독립군인 대한독립군단이 휘말렸다고 서술했다. 두산 교과서의 경우는 천재교육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자유시에는 한인이 중심이 된 부대가 있었음을 서술하였고, 이들의 통합 과정에서 소련내 한인 부대들 간 군사지휘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서술했다. 반면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상해파,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반목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 독립군이 이미 분열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 소련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휘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고 서술하여 군대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을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공산당과 잘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 무장부대에 대한 언급 없이 지휘권

29) 주진오 외, 위의 책, 207쪽

다툼이 공산당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친재교육 교과서에서도 공산당 간의 반목을 언급했지만 공산당과 군대가 어떻게 연결되어 갈등을 빚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맞물렸다고만 썼다.

군 통수권 문제와 관계된 무장세력(만주 독립군 및 한인 무장부대)의 내용 선정에 따라 교과서를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³⁰⁾ 첫째, 한인 무장부대와 군대 통합 문제에 대한 서술 없이 바로 적군에 의해 독립군이 무장해제 되었다라고 서술하는 방식이 있다.³¹⁾ 둘째, 군대 통합 문제는 서술했으나 만주 독립군만 언급할 뿐 러시아 한인 무장부대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경우가 있다.³²⁾ 마지막으로 한인 무장부대와 이들에 의한 군 통수권 싸움에 독립군이 휘말렸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³³⁾

자유시 참변에서 희생자 문제는 빼 놓을 수 없다. 희생자를 통해 사건 전개 양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피해자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에 휘말린 독립군들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적색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³⁴⁾, “이들은 그곳의 한인 무장세력인 대한 의용군과 고려 혁명군의 싸움에 휘말렸다. 여기에 러시아 측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³⁵⁾와 같이 피해자를 독립군 위주로 서술³⁶⁾하여 피

30)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모두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군 통수권 문제와 관련하여 만주 독립군과 한인 무장부대만을 가지고 분류하였다.

31) 김종수 외, 앞의 책, 184쪽

한철호 외, 앞의 책, 182쪽

32) 김한중 외, 앞의 책, 2006, 194쪽

주진오 외, 앞의 책, 207쪽

33) 김광남 외, 앞의 책, 191쪽

김홍수 외, 앞의 책, 208~209쪽

34) 김광남 외, 앞의 책, 191쪽

35) 김홍수 외, 앞의 책, 208쪽

36) 교과서 저자들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란 표현을 러시아 지역의 한인 무장부대를 포함한 독립군의 의미에서 서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 지역 한인 무장부대의 독립활동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점, 자유시 참변을 처음부터 간도에서 이동

해자를 만주 독립군으로 한정하였다.

종합적으로 모든 6종 교과서 자유시 참변 내용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모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자유시 참변을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 부대를 소련군(적군)이 강제 무장해제하여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의 희생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건에 있어 가해자는 적군이며 피해자는 독립군이다. 물론 금성 교과서의 경우 적군과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던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소속 무장 대대가 무장해제를 단행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상해파 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간의 반목에다 군 통수권 쟁탈전이 맞물리고, 러시아 적군 사령관 갈란데시베리의 무능하고 폭력적인 대처가 불러일으킨 참극”이라고 서술하여 단순히 적군의 무장해제만이 자유시 참변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말하는 자유시 참변의 역사적 성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자유시 참변이 서술된 부분의 소제목 ‘독립군의 시련’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로 인해 독립군이 시련을 겪게 된 것이 바로 교과서에서 말하는 자유시 참변의 역사적 성격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단순히 군 통수권을 둘러싼 갈등과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시 참변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군 통수권을 둘러싼 지휘권 문제로 폭발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당시 갈등 요인으로는 첫째, 러시아령의 한인 무장부대 간의 갈등, 둘째, 러시아령의 한인 공산당 사이의 반목, 셋째, 러시아 지역

한 독립군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는 점에서 독립군이란 의미가 여타 한인 무장부대를 포함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한인 사회의 분열(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 넷째, 러시아 볼셰비키 세력간 갈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 요소는 서로 한데 얽혀 있으며 특히 러시아 볼셰비키 세력 간 갈등은 볼셰비키의 한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 한인 간에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물론 이들의 한인 정책이 변화한 요인으로는 극동지역 내전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Ⅲ. 자유시 참변 관련 서술의 쟁점과 문제점

1. 러시아 극동지역 내전 상황과 한인 항일운동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곳은 아무르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러시아 극동’은 바이칼호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러시아영토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쪽으로는 시베리아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동해에 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몽골·만주·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요 해외 독립운동 지역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두만강을 경계로 한국국경과 접해 있고, 또한 국제정치상으로 러시아는 제정시대 이래 오랫동안 일본제국주의와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극동지역에서 한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반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한국인 항일 운동의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했다. 1922년 말 러시아 공산당 극동국이 집계한 바를 보면 한국인 주민수는 25만명에 달했으며,³⁷⁾ 1919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무장부대의 수는 1920년-1921년에 절정에 달했다.³⁸⁾ 이와 같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은 러시아 내전 중에 볼셰비키 정부가 선언한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과 더불어 만주의 독립군과 러시아 일대의 한인 무장부대들이 군대 통합을 위한 집결 장소로 자유시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다. 자유시 참변은 극동지역 내전 상황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한인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내전의 볼셰비키 정부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간섭군 중 하나인 일본군과 한인 무장부대의 충돌을 막기 위하

37) 임경석, 앞의 책, 49~50쪽

38) 권희영, 앞의 책, 177쪽

여 적군 휘하에 한인 무장부대를 통합하려다가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시 참변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당시 러시아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근·현대사의 교과서도 자유시 참변의 본문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볼셰비키 정부의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에 관한 서술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모두 언급했지만, 내전과 그에 따른 러·일간의 외교와 한인 정책의 변화에 관해서는 중앙교육과 금성 교과서만이 말하고 있다. 사실상 적군에 의한 무장해제와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이 자유시 참변에서 말하는 러시아와 관련된 서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근·현대의 역사를 말하는 경우, 세계사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대단원 도입부에 해당 시기 세계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물론 자유시 참변이 속한 대단원 역시 도입부에 관련 세계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의 세계 공산화 전략 혹은 코민테른에 관해 서술했다. 비록 자유시 참변을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시대와 관련하여 볼셰비키 혁명과 코민테른에 대해 언급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서술이 본문과 잘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시 참변의 러시아 관련 서술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자유시 참변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상황에 대한 서술은 내전 상황과 볼셰비키 정부와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내전 상황과 이에 따른 러·한 관계가 한인 무장세력의 자유시 집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한인 공산당 내부의 갈등, 한인 무장부대의 군대 통수권을 둘러싼 갈등,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내전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볼셰비키 정

부와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관계 변화를 중심에 놓고 약소민족해방운동지원 약속, 코민테른 등을 서술한 뒤, 이것이 자유시 참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서술해야 자유시 참변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동지역의 내전 상황에서 적군과 한인 항일세력³⁹⁾은 일본군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한인 항일운동세력은 볼셰비키 정부에게 적극적인 제휴대상이 되었고, 실제로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해방에 크게 기여 하였다.⁴⁰⁾

한인들에게 민족해방 문제가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일본을 같은 적으로 두고 있는 적군의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은 간도 참변 이후 장기적 무장활동을 위해 새로운 지역을 필요로 했던 독립군에게는 하나의 희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볼셰비키 정부는 내전의 종결과 정권의 안정이 최우선이었다. 따라서 한인 민족해방운동 지원약속에서 식민지 민족해방 문제는 자신들이 처한 내전의 종결과 이후 정권 안정 다음의 문제로 밖에 여겨질 수 없었다.

볼셰비키 정부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내전의 종결과 일본군 철병을 둘러싸고 볼셰비키 정부와 일본 사이의 외교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시점은 내전 종결을 앞두고 일본군 철수 문제로 러·일 외교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볼셰비키 정부는 한인부대가 일본군과 충돌을 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다.⁴¹⁾ 때문에 적군 휘하에 한인부대를 통합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가 발

39)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한인 항일세력은 크게 3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만주에서 이동해온 독립군 세력이며, 둘째는 러시아 곳곳에서 활동하던 한인 무장세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인 공산당세력이 있다. 사건과 관련된 한인 항일세력과 교과서 서술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40) 반병률, 앞의 논문, 1997, 107쪽

41) 권희영, 앞의 책, 179쪽

생한 것이다.

그러나 현 교과서는 내전 상황과 볼셰비키 정부와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지 않아 자유시 참변에서 당시 볼셰비키 정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물음들, 즉 적군은 왜 한인 무장세력을 강제 무장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 상황과 볼셰비키 당국과 한인 독립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중요한 내용, 즉 첫째 러시아의 두 차례 혁명, 코민테른과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 둘째, 러시아 내전과 일본군의 참전, 셋째 볼셰비키 정부와 한인 독립군의 관계를 보여주는 對日韓露攻守同盟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서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 상황과 볼셰비키 정부와 한인 독립군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對日韓露攻守同盟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19년 11월 상해 임정의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동휘는 임정을 통해 무장부대통합에 힘을 기울였다.⁴²⁾ 한편 볼셰비키 정부는 내전 승리를 위해 식민지 민족주의자와의 제휴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對日韓露攻守同盟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정 대표로 파견된 한형권과 볼셰비키 정부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이후 이동휘 등은 연해주와 만주의 조선인 무장부대들이 한편으로는 일본군의 추적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부대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극동 공화국의 자유시로 모여들도록 사업을 전개하였다.⁴³⁾ 즉 공수동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소교섭으로 맺어진 것으로 만주 및 러시아에 산재해 있던 무장부대가 자유시로 집결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며, 동시에 당시 볼셰비키 정부와 한인 항일운동세력 사

42) 윤대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分化」,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9, 175~178쪽

43) 윤상원, 앞의 논문, 2002, 11~13쪽

이에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시 참변의 발생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서술에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은 볼셰비키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당시 상황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볼셰비키 정부의 한인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과 우리가 생각했던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의 의미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가 이루어진 배경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내전 상황과 간섭군 중 하나인 일본군이 최대 병력을 파견하였다는 내용은 자유시 참변을 내전 상황에 따른 한인 항일세력과 볼셰비키 정부와의 관계, 볼셰비키 정부와 일본군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교과서는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을 대다수 본문에서 언급한 반면 세계 공산화, 코민테른은 본문이 아닌 대단원 도입부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 내전 상황과 일본군 파병에 대해서는 중앙교육 교과서만이 서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을 내전의 상황, 코민테른, 참전 중인 일본에 대한 태도 등의 요소와 상호 연결시켜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을 단순한 자유시 집결 배경으로만 여기게 함으로써 자유시 참변을 적군에 의한 배신행위로 이해하게 만든다.

2.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성장과 내부갈등

러시아 극동지역 항일운동세력 사이의 주도권 다툼은 자유시 참변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극동지역 항일운동의 양대 세력인 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의 통합 상해임시정부의 승인·개조 분쟁을 둘러싼 반

목이 이후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두 세력의 한인 공산당 통합문제와 군대 통합을 둘러싼 의견충돌로 인해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은 중요 해외 독립운동 지역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곳에서 발생한 독립운동세력 다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항일세력의 분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한인사회당과 국민의회의 갈등이다. 이것은 3.1운동 이후부터 1920년대 초까지의 임시정부 통합문제를 둘러싼 독립운동세력 사이의 의견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이후 자유시 참변을 불러오는 갈등 요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귀화인(러시아 국적 소지자)과 비귀화인(항일망명세력)의 갈등이다. 특히 비귀화인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초기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해방운동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한인 공산당인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갈등이다. 이들의 분열은 자유시 참변의 직접적 원인인 강제 무장해제를 가져왔다는 점과 초기 사회주의 민족운동의 분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의 갈등은 상해임시정부와 통합 문제를 두고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⁴⁴⁾ 그러나 이들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게 심화시킨 것은 통합 상해 임시정부의 승인·개조 분쟁 사건일 것이다.

1919년 당시 러시아령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던

44) 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의 갈등은 첫째, 두 단체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한인사회당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귀화인 2세 청년과 비귀화인들로 구성된 반면, 대한국민의회는 귀화인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한인 무장세력 통합을 둘러싼 경쟁으로 발생하였다. 3.1 운동이후 무장독립운동이 지배적인 흐름이 되면서 국내의 열혈청년 등이 무력양성운동에 참여 하기위해 서북간도로 대거 집결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두 세력이 갈등하였다.

조직은 대한국민의회였으며,⁴⁵⁾ 이들과 상해임정의 통합 분위기는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연맹회의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르익어갔다.⁴⁶⁾ 본격적인 통합은 상해 임정측의 안창호와 대한국민의회 측 협상 대표 원세훈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모든 정부를 해체하고 한성정부를 봉대하며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로 한다는 5개의 안이 마련되었다.⁴⁷⁾ 이에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8월 30일 브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개최된 국민의회 상설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합안을 결의하고 대한국민의회 해산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해체를 선언하고 상해로 가서 본 임시정부의 조직 상황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상해 임시 정부의 의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임시헌법 개조안을 가결시켜 개조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었다. 이에 승인·개조 분쟁이 발생하였다.

상해임정과 대한국민의회 통합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두 세력은 대립하게 되었다.⁴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인사회당이 통합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는데서 발생한다. 1919년 6월 말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임시정부 국무총리 취임으로 러시아령과 만주의 독립운동세력이 상해임정을 봉대하고 승인을 표명함으로써 상해임정의 대표성이 크게 강화되었다.⁴⁹⁾ 반면 이것

45)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은 볼셰비키 정권이 1918년 9월 붕괴되고 백군정부가 들어선 상태로 친볼셰비키 노선을 취했던 한인사회당은 활동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3월 17일 연해주에서 독립시위를 주도하면서 국내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반병률, 『한인사회당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 연구』5, 1993, 149쪽).

46) 반병률, 『大韓民國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2집, 1987, 103쪽

47) 國會圖書館, 『한국민족운동사사료: 3.1 운동편』2권, 1976, 743~744쪽 (반병률, 앞의 논문, 1998, 79쪽 재인용)

48) 대한국민의회는 상해임시정부와 통합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임시의정원이 개정한 임시헌법상 러시아령 한인 독립운동가에게 배정한 의정원 6석은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반병률, 앞의 논문, 1987, 117쪽).

49) 반병률, 앞의 논문, 1998, 85쪽

은 대한국민의회측에서는 치명적인 손실이었다. 러시아령과 만주 독립운동세력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그들의 권위는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통합 상해임시정부에 한인사회당의 참여는 독립운동 통합기관 설립에는 큰 공헌이었지만, 러시아령 한인사회로 보면 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치닫게 된 것이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와의 임시정부 통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시 참변보다 앞서 서술이 되어 있다.⁵⁰⁾ 모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간의 통합이 쉽지 않았으며 임시정부 위치 문제를 두고 갈등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어떤 교과서도 통합 상해임시정부의 권위와 대표성에 한인사회당의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단 1종만이 한인사회당이란 말 대신 “연해주의 이동회 등 일부 세력이 상하이 의정원에 합류하는 형태로 통합되었다”⁵¹⁾라고 서술하여 한인사회당 세력이 참여했음을 간접 표현하였다. 또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모두 대한국민의회가 통합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정부가 출범한 것으로 서술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통합 결렬 이후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12월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들의 활동 재개는 단순히 상해임시정부에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 극동지역 내전 상황이 불세비키쪽으로 기울어지자 1920년 9월 사회주의 노선으로의 변경을 공개 선언한다. 당시 러시아 지역 한인 공산당 세력은 상해파와 이르

50)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임시 정부의 통합과정은 대단원 3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중단원 2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단원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교육부,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4 사회, 2001, 180쪽).

51) 김한중 외, 앞의 책, 2006, 117쪽

쿠츠크파를 중심으로 결집되어가던 시기로, 1920년 말로 갈수록 이들 두 세력간의 통합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은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 대한국민회의의 사회주의 전환은 이르쿠츠크파에게는 결집 대상으로 떠오른 반면 한인사회당의 구 지도부 세력이 다수인 상해파에게는 달갑지 않은 세력의 등장이었다. 결국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입장 차이는 두 공산당 세력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통합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군권 장악 문제에 이르러 자유시 참변으로 표출되고 말았다.

그러나 교과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한 것으로 결정지어 서술하고 이후 활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시 참변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한인 사회의 분열을 아예 설명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렸다.

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는 귀화인과 비귀화인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한인사회당은 친불세비키 노선이었으며, 대한국민의회는 민족주의 계열로 그 노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선 차이는 그들의 구성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한인사회당의 경우 비귀화인(항일망명세력)과 귀화 2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귀화인은 한말 교육문화운동, 의병운동에 참여한 이후 한일합병을 전후로 하여 만주 연해주로 망명한 세력이었으며, 귀화 2세 청년들은 러시아 혁명사상의 영향과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참여, 노동운동 조직운동에서의 실천 경험을 통해 혁명가로서 자질을 구비해가고 있던 세력이었다.⁵²⁾ 한편 대한국민의회는 비교적 부유한, 부르주아적인 러시아화된 한인들(귀화인)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귀화인과 귀화인들의 노선 차이는 2월 혁명 이후 러시아령 한인들의 한인사회 결집을 위한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귀화인

52) 반병률, 앞의 논문, 1993, 136쪽

은 비귀화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했으며, 비귀화인의 항일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을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던 러시아 임시정부를 지지하기도 했다. 1918년 6월 결성된 전로한족중앙총회 역시 귀화인이 장악했으며, 이것은 대한국민의회의 전신이었다.

한편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 지역의 한인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동회를 비롯하여 한인 항일운동 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좌우파로 나뉘었는데, 우파세력이 이탈하고 친볼셰비키적인 비귀화인 중심으로 1918년 5월 10일(러시아력 4월 28일)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의 정식 출범이 이루어졌다.⁵³⁾ 즉 대한국민의회의 민족주의 노선과 한인사회당의 친볼셰비키적 노선이 서로 다른 것은 구성원의 성향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한국근·현대사의 어떤 교과서도 위의 사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한인사회당의 경우 이름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인사회당이 친볼셰비키적 노선의 사회주의 조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국민의회의 경우 임시정부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민족주의 노선을 띄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러시아령 한인 항일운동을 서술하면서 한인사회당의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경우 독립운동과 별개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사회당의 경우 항일운동 세력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통합 상해임정에 참여함으로써⁵⁴⁾ 임정의 권위

53) 반병률, 위의 논문, 132~134쪽

54) 친볼셰비키적인 한인사회당이 부르주아 성격을 지닌 상해임정에 참여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이들은 토착부르주아지를 봉건지주·귀족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혁명성을 인정함으로써 4월 대회에서 채택한 '순수한 계급투쟁강령'을 완화·수정하였다(반병률, 위의 논문, 1993, 162~164쪽).

와 대표성을 높여주었다. 이는 이들의 활동이 독립운동과 별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대한국민의회의 전신인 전로한인중앙총회는 일본을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또한 대한국민의회는 시베리아 내전 당시 백군에 호응했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 지도자로 활약한 장도정은 대한국민의회가 민족운동단체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대한국민의회가 사관양성을 명분으로 백군 장군 호르바트휘하 군대에 한인청년들을 모집 파견하였다가 실패한 것⁵⁵⁾을 들었다. 오히려 대한국민의회측이 독립운동세력으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대한국민의회는 재건 이후 사회주의로 완전히 노선을 변경했다.

한인사회당과 대한국민의회는 갈등은 이후 한인 공산당인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 분열은 자유시 참변의 직접적 원인인 강제 무장해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내전에서 볼셰비키의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많은 한인 공산당들이 출현하였고, 통합된 한인 공산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때 두개의 세력이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다. 이 두 단체는 물론 하나의 창립대회를 통해 하나의 한인 공산당을 만들려고 했으나 의견충돌로 인해 각자 창립대회를 연다. 결국 2개의 고려공산당이 생기게 된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무장 세력이나 만주에서 온 독립군들이 정치적 지휘를 받는 것이 이들 공산당임을 고려할 때 결국 군 지휘권에도 2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 셈이고, 이것이 군사충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두 공산당의 반목은 첫째 노선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르쿠츠크의 경우 핵심 그룹은 시베리아의 러시아 공산당에서 러시아 공산당원들의 지도

55) 반병률, 앞의 책, 1998, 201쪽

하에 성장한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러시아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입장을 취했다. 이와 달리 상해파는 조직적으로 독자성을 강조⁵⁶⁾했으며, 따라서 러시아 공산당에 대해 후원적, 독자적 입장을 취하였다.

둘째,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두 공산당의 태도이다. 상해파 공산당의 경우 한인사회당 구 지도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당의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반면 이르쿠츠크파는 대한국민의회와 손을 잡는다. 연해주 참변 이후 러시아령의 블라고베센스크로 이동한 대한국민의회에게 필요한 것은 공산주의 후원이었다. 이에 1920년 9월 대한국민의회는 사회주의로의 방향전환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⁵⁷⁾ 한편 이르쿠츠크파는 다른 사회주의 세력과의 제휴가 필요했다. 그러나 상해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타 한인부 영향으로 블라고베센스크에서의 현지 사회주의단체와 교섭은 실패했다. 결국 그들의 교섭 단체는 상해파와 갈등관계였던 대한국민의회였을 것이다.

셋째, 두 공산당과 관련 있는 러시아 볼셰비키 세력 간의 갈등과 이들의 한인정책이 두 공산당의 갈등을 가져왔다. 이르쿠츠크파의 경우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국 산하 동양국의 후원을 받고 있었으며, 상해파는 극동 공화국의 러시아 공산당 극동국 산하기관인 극동국 한인부(치타 한인부)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다른 두 볼셰비키의 세력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이들 볼셰비키 세력의 정책에 따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볼셰비키 정권이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셰비키 정부의 중앙과 지방 당국자, 코민테른 등 세력간에 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전이 종결되어가고 한인

56) 반병률, 앞의 논문, 2004, 348~349쪽

57) 임경석, 앞의 책, 289쪽

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1921년 1월 15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소위원회는 제 6의안 ‘극동의 조직사업’이라는 안건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결정했다. 첫째,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국 산하 동양국을 코민테른에 이관한다. 둘째, 슈마츠키를 극동주재 코민테른 대표자로 임명하며, 그에게 동양국의 재편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였다. 이후 1921년 2월 동양국은 코민테른 집행 위원회 극동비서부로 개편⁵⁸⁾되었으며, 따라서 이르쿠츠크의 전로한인공산당 중앙총회도 극동비서부 산하기관이 되었다. 이는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반목에서 볼셰비키 정부측이 사실상 이르쿠츠크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코민테른의 위와 같은 결정전에는 상해파가 이르쿠츠크파를 압도하고 있었다. 우선 상해파의 지도부는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단체인 한인사회당의 지도부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한인사회당의 위상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이들을 후원하던 극동 공화국의 집정관인 크라스노쇼코프는 레닌의 극동 공화국 설립과 관련하여 동양의 무산 혁명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았던 자였다.⁵⁹⁾ 자신들이 우월하다 여기고 있던 상해파는 코민테른의 결정을 무시했으며, 공산당 대회 및 한인 무장세력을 자신들 중심으로 통합하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처사는 결국 이르쿠츠크파와 극동 비서부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인 자유시 참변을 불러왔다.

타국에서 주재국의 의견을 무시한 위 행위는 분명 자유시 참변 같은 불상사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다수 한인 독립군과 한인 무장부대들이 동조한 상해파의 위상을 무시한 볼셰비키 정부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볼셰비키 정부 측은 이르쿠츠크파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 여기에는 내전종결과 일본군 철병을 우선시한

58) 임경석, 위의 책, 299~300쪽

59) 임경석, 위의 책, 261쪽

볼셰비키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극동 공화국은 성립자체가 간섭군들의 철병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완충국가였다. 따라서 외세 간섭군을 철병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⁶⁰⁾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볼셰비키 정부의 코민테른을 통한 한인 무장세력 통합은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 극동지역에서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방안이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한인 공산당에 관한 서술의 경우 천재교육 교과서와 금성출판사 단 2종만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 교과서가 공산당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 또한 2종교과서의 서술에도 문제점이 있다.

상해파, 이르쿠츠크파는 한인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러시아 공산당으로 오인할 소지를 남긴다.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산당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당의 연상 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자유시 참변의 모든 원인을 볼셰비키 정부에게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재국이 자신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행위를 무조건 배신행위라고, 감정적으로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주재국의 영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존의 우위였던 세력만을 믿고 강행한 상해파의 행동이나 대다수 한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볼셰비키 정부 측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을 우위에 놓고자 한 이르쿠츠크파 역시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한인사회당이나 한인 공산당 등을 단순히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녔다는

60) 권희영, 앞의 책, 182쪽

이유 때문에 교과서에 서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당시 항일운동세력들을 사회주의, 민족주의라고 구분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행위들이 많다. 그것은 이들의 일차 목표가 사회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19년 3.1 운동 이후 자유시 참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초기 한인 사회주의 모습은 민족운동의 역량의 확대에 빛어진 것으로 민족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무장부대의 자유시 집결과 군대 통합 문제

자유시 참변의 직접적 계기는 한인 무장부대의 군대 통합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정의회가 적군과 함께 상해파 소속 한인 군대들을 무장해제하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인 무장부대들이 자유시로 집결한 배경과 이들의 군대 통합론 등장 그리고 한인 무장부대 내부의 지휘권 다툼이 무장해제로 이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자유시 참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독립군의 자유시 집결과 군대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무장해제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자유시 참변은 자유시로 집결해 온 만주 독립군 및 러시아 지역 한인 무장세력들이 군 통수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볼셰비키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르쿠츠크파 소속 군대가 상해파 소속 군대를 무장해제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군 통수권 다툼을 교과서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교과서 서술내용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군 통수권과 관계된 한인 주체세력(만주 독립군, 한인 무장부대, 한인 공산당)을 모두 서술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없었다. 이 때문에 군 통수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하나의 세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군 통수권 문제조차 담고 있지 않은 채 자유시 참변을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로 서술하여, 이 사건을 적군에 의한 단독 배신행위로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만든 경우도 있다.

선정된 내용을 서술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만주에서 이동한 독립군 위주의 서술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 선정 문제에서 한인 무장부대에 대한 생략 역시 자유시 참변 서술이 만주에서 이동한 독립군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 지역의 한인 무장부대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변의 피해자는 만주 독립군으로만 축소될 것이며 따라서 자유시 참변의 일련의 과정은 만주에서 이동해 온 독립군과 이들의 무장해제로 인한 사건으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지역의 한인 무장부대를 내용에 포함했다고 해서 서술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러시아 지역의 한인 무장부대들의 형성 배경과 활동, 이들의 독립군과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서술 없이 그들의 존재만 언급한 상태에서 이들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다툼에 독립군이 휘말렸다고 서술한다.⁶¹⁾ 그리고 바로 적군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뒤따르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령의 한인 무장

61) 천재교육과 두산 교과서는 모두 한인 무장부대의 존재를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두산 교과서의 경우 “한인 부대들의 통합 과정에서 소련 내 한인 부대들 간에 군사 지휘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린 독립군들”이라고 서술했으며, 천재교육의 경우 “이들은 그곳의 한인 무장 세력인 대한 의용군과 고려 혁명군의 싸움에 휘말렸다”라고 서술하여, 두 교과서 모두 러시아 지역의 한인 부대들 사이 군사 지휘권 분쟁에 독립군이 휘말렸다고 쓰고 있다.

세력 다툼이 통수권을 위한 과별싸움이자 독립군 피해의 원인일 뿐이란 의미로 서술하였다.

위와 같은 서술은 한인 무장부대에 대해 감정적 평가,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러시아 지역의 한인 무장부대에 대한 어떠한 배경 지식도 설명하지 않고, 한인 무장부대의 싸움에 독립군이 휘말렸다는 식의 서술은 학생들이 한인 무장부대는 독립군 피해의 원인 제공자로 자칫 역사 속에서 나쁜 행위자로 간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⁶²⁾

물론 군 통수권 다툼은 러시아령 한인 무장부대들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만주 독립군 역시 분열되어 싸움에 휘말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⁶³⁾ 그러나 이들의 다툼을 단순한 과별싸움으로만 보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 한인 무장부대들 사이에는 무장부대 통합론이 이야기되고 있었으며, 이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대가 동조하고 자유시로 집결하였다.⁶⁴⁾ 또한 이후 누구의 정치적 지휘를 받을 것인가를 두고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정의회와 상해파의 사할린 의용부대가 대립을 할 때 고려군정의회측은 몇 차례 권고와 타협을 시도하였고,⁶⁵⁾ 사할린의용대 역시 이들과 타협

62) 인물학습의 경우 한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인물의 행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는데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과거 인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추론하고, 그러한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김한중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5, 194~195쪽).

63) 자유시 사변은 한인 무장부대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책 사이에 있었던 근본적인 갈등이 원인이 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자유대대와 니항군대와와의 대립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권희영, 앞의 책, 192쪽). 북간도의 독립군부대들 가운데 총군부 군대와 국민회 군대가 대한국민의회의 계획에 호응했다(임경석, 앞의 책, 332쪽).

64) 1920년 10월 전후 아무르주 영내로 한인 무장부대들이 집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러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무장부대를 통합하여 단일한 대부대를 편성하려는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상해임시정부 전권위원 한형권이 그해 여름 러시아정부와 비밀리에 체결한 ‘대일한로공수동맹(對日韓露攻守同盟)’이었다(임경석, 위의 책, 313쪽).

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이들의 궁극적 목적이 지휘권 다툼이 아닌 무장부대통합임을 의미한다. 즉 한인 무장부대를 통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각 부대들 간의 정치, 사상적 지향에 편차와, 이들을 둘러싼 한인 공산당과의 관계 및 불세비키 세력과의 관계의 차이가 무장해제로 이어진 것이다.

희생자 서술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인 희생자 수는 당시 사건의 피해 여부 및 사건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서술해 줄 필요가 있다.

자유시 참변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 고려혁명군 전권 대표 오흘라(Marta Iakovlevicha Okhola)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측 1명 사망, 9명 부상이었고, 피해자인 사할린 부대는 36명 사망, 행방불명 60명, 최종 무장해제된 사람들 860명이었다.⁶⁶⁾ 그러나 ‘간도국민회’, ‘군비단’, ‘신민단’, ‘의민단’ 등 11단체의 <문창범 등을 공격하는 성토문>에는 희생자수가 적탄에 희생된 자 72명, 익사자 37명, 기병추격 200여명, 행방불명 250명으로 600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포로로 잡힌 수가 917명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⁷⁾ 한편 <군정의회선포문>의 경우 사망 37명, 부상 4명, 도망 50여 명, 포로 900여 명이라고 주장하였고,⁶⁸⁾ 장도정은 가해자 측에서는 사상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였다.⁶⁹⁾

희생자 보고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가해자 측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할린 부대 측이 거의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5) 윤상원, 앞의 논문, 2002, 43쪽

66)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34권, 189쪽, 414쪽(반병률, 앞의 책, 1998, 328쪽 재인용)

67) 반병률, 위의 책, 328쪽

68) 金正柱, 『朝鮮統治史料』7권, 31~37쪽(반병률, 위의 책, 328쪽 재인용)

69) 張道政, 『高麗共產黨의革命』, 『誠齋 李東輝 全書』下, 556쪽(윤상원, 앞의 논문, 2002, 44쪽 재인용)

그러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희생자를 만주 독립군으로 한정하였다. 사실 피해자인 사할린의용대 안에는 독립군 외에 러시아령의 한인 무장부대원들도 있었으며 이들 역시 피해자였다. 그러나 희생자를 단순히 ‘큰 피해’, ‘많은 희생자’, ‘수 백명’이란 추상적 서술⁷⁰⁾에 그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희생자를 서술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당시 사건의 피해정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게 하며, 동시에 희생자 비교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건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70) ‘큰 피해’, ‘많은 독립군 희생’처럼 가장 추상적으로 서술한 교과서는 두산, 법문사, 중앙교육 교과서가 있었다. 금성과, 대한교과서의 경우는 ‘900여명’ 혹은 ‘수 백명’이라 서술했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본문의 읽기 자료에서 “한국 독립단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사망자는 272명, 포로는 864명이었다”라고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며, 읽기 자료에 “양측 조선인 부대들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았다”라고 서술하여 살상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나 이에 대한 무력 대응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V. 결 론

1921년 6월 28일 발생한 자유시 참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으로 주목된다. 우선, 볼셰비키의 혁명, 내전 발발, 내전의 종결에 따른 볼셰비키 정부의 한인 정책 변화가 자유시 참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해외 독립운동의 한계와 주재국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사건의 배경인 러시아 극동지역은 주요 해외 독립운동 지역의 하나로, 당시 러시아령의 두 독립운동세력인 대한국민의회와 한인사회당의 주도권 다툼이 자유시 참변의 갈등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자유시 참변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독립운동 모습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초기 사회주의 민족운동 세력들이 자유시 참변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통해 초기 사회주의 민족운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3차 교육과정부터 “자유시 참변”이 내용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에서 말하는 자유시 참변이란 적군에 의한 배신행위인 강제 무장해제와 이로 인한 독립군의 희생이 전부였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근·현대사가 선택·심화 과정으로 국사로부터 분리되면서 교과서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하게 위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자유시 참변”에도 이것이 작용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었으며 서술방식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지목하고 싶은 문제점은 세계사와의 연관성 부족 문제이다.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무르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내전 상황과 볼셰비키 정부와 한인 관계, 볼셰비키정부와

일본과의 관계가 자유시 참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위와 관련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본문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볼셰비키의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과 적군에 의한 무장해제가 전부였다. 물론 사건과 관련된 세계사에 대한 내용을 대단원 도입부에 서술하고 있으나 “자유시 참변” 본문 내용과 연결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러시아의 한인 정책이 당시 극동지역의 내전 상황 변화와 연관되어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항일 무장부대들이 자유시로 집결하는데 영향을 미친 볼셰비키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은 유럽의 공산화 실패와 내전의 발발로 고립된 볼셰비키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편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전이 종결될 즈음 극동 공화국 대신 극동 비서부에게 한인 무장부대 통합을 위임한 것은 국제 공산당이 한인 무장부대 문제를 담당함으로써 극동 공화국이 철병하는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볼셰비키 정부의 행위들은 자국에서 볼셰비키 정권 안정을 최우선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자유시 참변이 발생한 러시아 지역이 당시 주요 해외 독립 운동 지역 중 하나였으며 이에 이곳의 독립운동 세력간의 주도권 다툼이 자유시 참변 근본 갈등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독립운동 지역으로 러시아령의 중요성이나 이곳의 독립운동세력인 대한국민의회와 한인사회당의 주도권 다툼에 대해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국민의회와 한인사회당의 갈등이 심화된 통합 상해임시정부의 승인·개조 분쟁에 대해 앞 단원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오히려 대한국민의회가 통합 상해임시정부를 승인한 뒤 해체되었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러시아 지역 독립 운동 세력간의 주도권 다툼을 전혀 서술할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셋째, 한인 이르쿠츠크파 공산당과 한인 상해파 공산당의 반목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시 참변은 분명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정의 회가 상해파 소속 무장부대를 강제 무장해제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반목이 자유시 참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교과서 중 단 2종만이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어떤 교과서도 이들이 한인 공산당임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 볼셰비키, 적군에 의한 무장해제와 연상 작용을 일으켜 공산당 반목이 러시아 공산당 간의 반목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며 사회주의 민족운동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수용된 것이며, 한인 공산당 역시 독립을 공산주의 강령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 사회주의 민족운동의 한 모습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넷째, “자유시 참변”을 만주에서 온 독립군 위주로 서술하는 것은 잘못이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비폭력 운동에 대한 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무장독립운동이 목소리를 높여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만주 및 러시아령에 한인 무장부대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러시아령의 경우 적군과 한인 무장부대들은 공동의 적 일본군을 두고 있어 무장부대 활동이 더욱 활발했다. 물론 이들도 만주의 독립군처럼 군대 통합을 통한 한인 무장부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유시로 집결하였다. 군 통수권을 둘러싼 다툼은 분명 무장부대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사할린의용대에는 다수의 한인 무장부대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만주 독립군으로만 한정하여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사건을 독립군 중심으로 전개시키고 러시아령의 한인 무장부대를 단순히 존재만 언급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지닌 서술로는 학생들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또한 자유시 참변이 지니는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시 참변”을 올바르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단원 도입부에서 자유시 참변과 관련 있는 국제정세가 사건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내전 상황 변화에 따른 볼셰비키 정부와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관계변화 중심에서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 및 코민테른 등을 서술한 뒤, 이것이 자유시 참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 서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 주요 독립운동 지역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당시 이곳은 25만 명의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한인사회당, 대한국민의회의 한인단체들도 성립해 있었다. 또한 주요 한인 무장 투쟁지역으로, 한인 무장세력들의 통합을 위한 집결장소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자유시 참변 서술을 위해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일세력 활동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 ‘사회주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한인사회당과 한인 공산당의 항일활동 및 상해임시정부 승인·개조 분쟁과 대한국민의회의 승인 거부를 사실대로 서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교과서 및 연계도서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4.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1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8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0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6
-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6
-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6
-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 2006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6
- 편집부 편,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6

2. 자료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 러시아 編』,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5-洪範圖 編』,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현대사연구소 자료총서 제4집-遲耘 金綴洙』, 1999

3. 연구논저

- 권희영, 『한국과 러시아: 관계 변화』, 국학자료원, 1999
- 권희영, 『한인 사회주의 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김블라지미르 지, 조영환 역,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국학자료원, 1997
- 김주용, 「1920년대 만주에서의 한인 청년운동 연구-사회주의계열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84집, 1999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 김한중,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 세상, 2005
-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5
- 김한중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5
-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 박보리스,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한인 반일해방운동(1910-1918)」, 『汕耘史學』 9, 고려학술문화재단, 2000
- 반병률, 「大韓民國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 연구』2집, 1988
- 반병률, 「대한국민회의의 민족운동과 안창호」, 『도산사상사연구』 제13집, 도산사상연구회, 1998
- 반병률, 「러시아 당국과 한인 민족운동」, 『아시아 문화』 13,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 연구소, 1997
- 반병률, 「3·1운동 후 노령지역의 무장독립운동과 자유시 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 반병률, 「이동휘와 1910년대 해외민족운동: 만주, 노령 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동(1910-1918)」, 『한국사론』33, 1995
- 반병률, 「한국 사회주의운동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세대의 학문적 결산」, 『역사와 현실』통권 52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 반병률, 「한인사회당의 조직과 활동(1918-1920)」, 『한국학연구』5, 1993

- 서대숙, 「沿海州地域 韓人民族運動에 대한 蘇聯의 政策」, 『汕耘史學』9, 고려
학술문화재단, 2000
- 엔.아. 부제닌·엔.덴. 부제닌, 알틴벡 쿠르만바예프 역·윤상원 감수, 「러시아 내전
에서의 한인들의 참전」, 『역사문화연구』제24집, 2006
- 윤대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分화(1919-1930)」,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윤상원 「무장부대 통합운동과 대한독립군단: 1920년대 초 만주와 연해주 무장
부대들의 동향」, 『역사문화연구』제24집, 2006
- 윤상원, 「自由市事變 前後 朝鮮人 武裝部隊 統合運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02
- 이현주, 『한국사회주의세력의 형성』, 일조각, 2003
-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외,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21세기 한국
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 역사비평사, 2003
- 임경석,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군사활동-고려혁명군을 중심으로」, 『국사관 논
총7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 임경석, 『항일독립운동의 발자취』, 탐구당,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the Free City Incident in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s under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0

Han Na, Cho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Korean guerrilla forces, divided into many groups, gathered together in the Free City from 1920 to 1921 for the purpose of the unification of the armed units. However, due to the Free City Incident on June 28, a number of Korean militants were killed and ran away from their units, which led to the weakening of the Korean armed forces seriously, and subsequently prevented the unified army from being linked to the anti-Japanese movement,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t large. The Free City Incident refers to the event where Irkutsk based Goryeo Gunjeong Uihoe(Korean Military Council) in conflict with the Sakhalin Volunteer Army over the unification of armed forces disarmed the Sakhalin Volunteer Army with the Russian Red Army. However, this is a superficial reason, and to explain this incident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during the Russian Civil War in the Far

East area at that time, resulting changes of Russian policies on the Korean people, conflicts between the Korean in Russia,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armed forces against the Japanese rule.

Findings of studies performed by Kim Jun Yeop, Kim Chang Sook, Seo Dae Sook, and Shin Jae Hong at earlier stages in this field have been assessed as pioneering. However, they exhibited a limit to fail to see socialism from an anticommunist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Young scholars in the late 1980s attempted to see socialism as part of anti-Japanes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elease of documents by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and the Comintern contributed to the activation of more studies. As a result, recently there have been made many studies which consider the Free City Incident from a variety of viewpoints such as change in the Russian policies on Koreans, unified movement of the Korean armed forces, and Korean armed forces against Japan in Russia.

Since the Free City Incident was first mentioned in Korean history textbooks under the amended 3rd Curriculum in 1978, until the 6th Educational Curriculum, Korean history textbooks had defined the incident simply as treachery of the Russian Red Army, reflecting initial results of studies done from anti-Communist perspectives. Despite many outcomes of studies,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education under the current 7th Educational Curriculum has some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of contents and the way of description.

Firstly, the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regions as a key oversea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ase is not stated. Secondly, descriptions about the anti-Japanese movement forces in the Russian regions(Korean People' s Committee, the Korean socialists, the Korean Communists, and the Korean armed forces) are lacking or perverted. Thirdly, the incident is mentioned, mainly focusing on Korean independence armed forces in Manchuria.

The biggest problem of all is that there is a weaker connection with world history. Two of six goals of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curriculum present a connection with world history, which requires us to see Korean history in the context of world history. The Free City Incident, which occurred in one of the far east regions in Russia Free City, was closely related with policies of the Bolshevik forces on Kor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lshevik regime and the Japanese army for intervent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Japanese Korean army and Japan, amid the Russian Civil War. Accordingly, international situations related to this tragic incident should be tackled sufficiently. Nevertheless,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s have an obstacle to make it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the Free City Incident, by taking a dichotomy position consisting of introduction of unit(world history) and main body(based on history of Korea) and describing world

history superficially.